

#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황인구  
인쇄인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967-8133 FAX:965-0643

2002년 4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51호

## 한약재 HS코드 세분화 필요

### “수급조절품목만이라도...” 재정부에 건의

한약재 HS코드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약재 HS(관세 통계 통합품목분류표)코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품목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고 이들 기타 품목이 수입물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한약재(식품포함)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한약재 HS코드를 세분화해 줄 것을 재정부에 건의했다.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어 수입을 제한하고있는 21개 품목조차도 식품으로는 무제한 수입됨으로써 시장에서 한약재로 변칙 유통되고 불법유통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청 및 농림부 등 관련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약재 관세 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가 약재류는 14개 품목(감초, 부자, 황련, 원지, 패모,

두충, 사인, 산조인, 사군자, 용안육, 산사자, 연자육, 박하, 초피 등)으로만 분류됨에 따라 국내 생산이 많은 황기, 당귀, 오미자, 구기자 등 주요 약재류가 모두 1211.90, 9090(기타식물)로 통합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품용 수입약재가 시중에서 한약재로 변칙 유통되고 있음에도 관련기관에서 품목별 수입내역 검색 불가능으로 체계적인 조사 등 수입한약재의 불법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국내 생약생산기반은 날로 황폐화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이 집계한 HS코드별 한약재 수입량 통계자료(2001년도)에 의하면 전체 한약재 수입량 36,990톤 중 기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71톤으로 무려 89%

에 이르며, 기타 품목 중 수급조절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약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등급 단속 적발물량도 지난

99년(9.3톤), 2000년(22.1톤), 2002년(58.6톤)으로 기하급수적 증가추세에 있다.

생약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국내 생산비중이 많은 주요 품목(수급조절품목)만이라도 우선 관세 통계통합 품목분류표(HSK)의 세분화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의 세부 품목별 수입현황이 공개되어 부정유통 방지 등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회신을 통해 “해당물품의 수출입 규모, 세분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요 한약재에 대한 HSK 10단위 세분화 건의는 수용하기가 곤란함”을 최근 밝혀왔다.

## 국내산 건지황 7천9백근 수매

국내산 건지황 7,900근에 대한 수매가 최근 이뤄졌다. 이는 수입지황 300톤에 대한 수입을 승인해 주는 대신 국내 지황농가 민원발생시 언제라도 국내산을 전량 수매해주기로 결정한 제47차 한약재수급조절위 결정내용에 따른 것.

물량부족으로 생지황 값이 600g당 3천원, 건지황이 근당 1만원선까지 거래되던 지난해에 비해 지황 재배면적이 급벽히 증가한 올해는 과잉생산으로 생지황은 물론 건지황 시세가 폭락, 생산농가들이 판로에 어려움이 많았다.

수매가는 600g당 3천8백원. 당초에는 농가보유량 1만5천근 범위 내에서 600g당 4천5백원 선에 수매논의가 이뤄졌으나 시중 시세와 샘플 품질을 감안 수매가가 하향 조정됐다.

지황생산 농가들은 30kg 단위로 포장하는 한편, 국내 재배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지 확인서,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했다.



### 제8회 경동약령시 축제

6월1일부터 2일 서울 경동약령시장에서는 제8회 ‘경동약령시의 날’ 기념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기간동안에는 △우수한약재 전시 설명회 △한약차 시음회 △약재설명기 시연회 △가훈 씨주기 △한약초 꽃 사진 전시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저소득 주민, 노약자 등을 위해 마련된 한방 무료진료 행사는 대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우리 땅에서 나는 순수 토종 한약재 샘플 1백여종과 식물표본 20여 점을 전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지면안내

- KFHH 창립 ..... 3면
- 유통시세정보 ..... 4면
- 재배기술정보 ..... 5면
- 마산대학 전통약재개발과 신설 ..... 6면

## 작물시험장 약용식물원 개원

### 농업인·학생 교육및 실습장으로 개방

농진청 작물시험장 내 약용식물원이 오는 5일 문을 연다. 자주색 꽃잎이 앙증맞은 패랭이꽃, 꿀풀, 진자주색이 선명한 끈끈이대나물, 이쁜 보라색 컴프리, 석잠풀 외에도 냉초, 카모밀라, 영경귀 등.. 새 단장을 끝낸 2천5백평 규모의 약용식물원은 시샘하듯 앞다퉈 피워낸 약초 꽃들로 화사한 6월을 수놓고 있다.

작물시험장은 1962년 3천5백평 규모의 약용식물보존포를 조성한 이래 약용수목, 음지식물포 및 수생식물 보존포 2전평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새로 조성한 2천5백평 규모의 약용식물원은 보유식물자원을 과별, 군락형태로 식재하여 국내외 내방객 및 농업인, 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실습장

으로 개방하고 기존의 보존포는 연구에만 이용함으로써 보존, 연구와 교육효과를 동시에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약용식물원에는 현재 총 102과 533종의 약용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국내에 분포하는 약용식물 1천여종을 목표로 체계적인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식물원

바로 옆에는 국내외 식물표본 제작 및 영구보존을 위한 표본실을 설치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모든 종의 식물 추출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 성낙술 과장은 “식물보전과 함께 분류학에 근거한 기원이 확실한 식물연구재료는 물론 추출물 시료를 관련 연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약용식물의 종합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약용작물 연구 및 천연물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담당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개원식 참석자들에게는 작물시험장에서 제작한 “식물자원목록”, “내 손으로 가꾸는 약초주말농장”, “우리산하 우리약초” 등 일반인들도 손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삽화그림을 곁들여 소개한 소책자를 증정할 계획이다.

6월이 가기 전에 약용식물원에 들러보자. 그곳에 가면 비교적 친숙한 도라지에서부터 수줍은 듯 핀 구절초, 감국, 산국, 잔대, 해당화, 지황에 이르기까지 익숙한 이름의 약용식물들 생김새와 갖가지 꽃을 구경할 수 있다. <문정희>